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116:1-19)

The God who helps those who do not deserve to be helped

(Psalms 116:1-19)

본시는 치명적인 위기에서 구원 받은 한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낸 감사시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직면했던 위기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가 경험했던 위험의 상태가 극심했다는 것과 따라서 그의 감사가 지극했음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is is a man's psalm of thanksgiving expressing his thankfulness and love towards the Lord God, when he had been delivered by the Lord from mortal crisis. It is not clearly known who he was, or with what crisis he was confronted with, but we are able to see how extremely dangerous his situation was, and how he was thankful in each verse. The psalmist prayed and called on the Lord, and the Lord heard his cry for mercy.

1.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시인은 사경을 헤매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중요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주 변하는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 What has the Lord done for the psalmist?

The psalmist had been seriously ill at the brink of death, but the Lord saved him from death. His salvation was essentially related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Likewise, the reason why his salvation was connected wit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as the unchangeability of God. It is commonly thought that everything changes easily, because human beings are so often changeable. However, God's work in the past guarantees and reveals the future. Those who hold to Him in belief can call on the Lord for certainty.

- ①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가 충만하십니다.(5절)
- ②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를 보호하십니다.(6절)
- ③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됩니다.(7절)
- ④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동안 하나님 면전에서 행할 것입니다.(8-9절)

- (1) The Lord is gracious, righteous, and full of compassion (v. 5).
- (2) The Lord protects the simple-hearted (v. 6).
- (3) The more you believe and trust in God, the more comfortably you can rest (7).
- (4) Those whose souls have been delivered from death may walk before the Lord while they are living (vv. 7-8).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그 요구에 못 미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The Bible shows us what God demands of us, how we cannot fulfill His demand, and what Jesus has done to recover us from our sin. Now, what God demands from us is that we should believe and trust in Jesus Christ, whom God has sent.

2. 시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시인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What does the psalmist have to do?

With what can the psalmist repay the Lord, who has given us all His goodness? In fact, he doesn't need to do anything to repay. There is no one who can repay anything to the Lord. All things come from Him, are of Him, and will be given to Him, because all of God's goodness comes from Him. Even though the psalmist doesn't have anything worthy of giving God, the psalmist presents how we may repay God's goodness.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어떤 값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 ①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 ②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1) We should tell others that God gave us His mercy.
 - (2) We should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 Psalms 116 doesn't say what we can give to the Lord. It is more about the cup of salvation than about giving to God. In other words, the only way that we can repay God for what we have received is that we receive more from Him, which means we can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ask Him for even more.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치는 것보다 오히려 구원의 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값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y beloved congregation!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We should receive the cup of salvation just as Jesus' disciples received it at the last supper. That is the cup of his Spirit. He gives us desire, when we have no desire, and helps us while our being is in despair. By believing in Him and witnessing him, I pray that you and I will praise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mo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과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잔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잔입니다.

희망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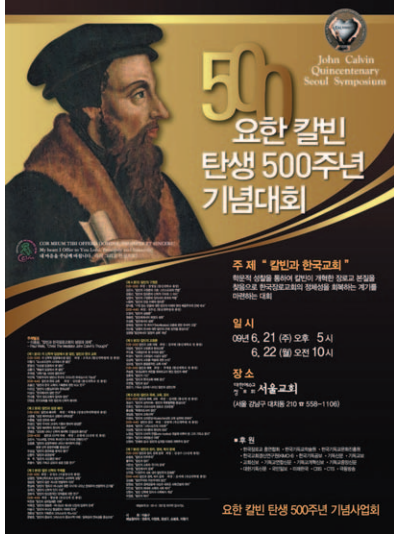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오늘 오후 5시 - 칼빈 예배 형식 따른 기념예배, 성찬식
6시 - 기념음악회 - 본당
6월22일(월) 오전 10시 - 칼빈공로상 수여 및 학술행사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가 오늘 오후 5시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2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드려지는 기념예배는 이번 대회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500년 전 칼빈이 제시한 예배 형식에 따라 드리게 되어, 예배 중 성찬식이 거행되고 칼빈이 예배 시 했던 것처럼 구제헌금도 드린다.

기념예배를 마친 후 계속하여 본당에서 기념음악회로 이번 대회를 축하한다. 기념음악회는 한국의 정상급 성악가-소프라노 김영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바리톤 최현수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오르간 연주(김현정 선생, 주일3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과 미리암 여성합창단의 찬양과 Brass Market(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금관5중주단)의 연주 등이 이어진다. 이튿날인 6월22일(월), 오전 10시 개회예배 후 칼빈공로



상 시상과 프랑스에서 현대 불어로 새로 번역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국내 14개 신학대학교(대학원) 총장과 서울교회에 기증하는 기증식이 진행되고 칼빈기념우표 발행과 칼빈 명예도로 명명식이 계속된다.

이후 오전 11시, 주제강연(이종윤 목사, Paul Wells교수)과 오후1시20분부터 7개 분과별 학술심포지움이 계속된다. 각 분과별 좌장은 전현직 신학대학교 총장이다.

이번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섬김위원회(본부장 하영수 장로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원활한 주주를 돕기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서울교회 성도들은 오늘과 내일 2일간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해작전 승전 4일 앞으로 6월25일(목) 승전의 날로

지난 6월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2009년 홍해작전이 승전까지 앞으로 4일 남았다.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은혜로운 새벽강단을 인도하고 있으며 연일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예배를 가득 매우고 있다. 이제 승전까지 앞으로 4일 남았다.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공동기도와 개인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홍해작전 마지막 날인 25일은 새벽기도회 후 8층 만나홀에서 승전을 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을 떼는 잔치로 모인다.

칼빈 사진전

6월21(주)-22일(월)까지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는 오늘부터 내일(22일)까지 칼빈 사진전을 우리교회 1,2층 로비에서 연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칼빈 관련 사진전에 성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나눔의 집 기증품 접수

우리교회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성도들의 가정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훌륭한 상품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1,000원 씩에 공급된다.

나눔의 집에 기증하실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가져오시면 된다.

태신자 명단

-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영실(손준화 조봉환) 김형상(장미란 정다희 정채희) 김종철(김영희 이형철) 김정희(조기안 조홍채) 김영주(이수곤) 김순영(임경애) 김명실(김재형 김진 김호진 박윤희) 최미희(남상숙 장현도) 최근정(이승철) 주현희(심영무 정봉순) 박영실(손준화 조봉환) 김형상(장미란 정다희 정채희) 김종철(김영희 이형철) 김정희(조기안 조홍채) 김영주(이수곤)

※괄호 앞의 이름은 기도자입니다. (다음 주 계속)

연합과 일치성을 위한 「장로교의 날」

7월10일(금) 오후 5시 장충체육관 특설무대

한국의 모든 교단에 속한 장로교회들이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상임회장 이종윤 목사)의 주최로 한 자리에 모이는 "장로교의 날"행사가 칼빈의 생일인 7월10일(금) 오후5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장로교의 날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없이 분열된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하나로 모이는 자리로 1부(개회식, 강연회)-요한 칼빈의 신앙과 삶, 2부(예배)-정통개혁주의 예배의 재구성, 3부(제언 및 선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비전제시, 4부(축하음악회, 폐

회식)-연합과 일치를 위한 문화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날 2부 예배는 칼빈이 제시한 예배의 전형을 재현하고 3부 제언 및 선포 사이에 '장로교의 날 대(對) 사회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4부 축하음악회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500명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인양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 CCM 가수 박종호 남궁송옥, 테너 나승서, 소프라노 박정원 등이 찬양을 할 예정이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당일 장로교의 날 행사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서울강남노회(통합)·수도노회(합동) 지도자 간담회 은혜 중에 마쳐

지난 18일(목) 오전 11시 우리교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초청 형식으로 열린 수도노회(합동)와 서울강남노회(통합) 지도자 간담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한국장로교회의 양대 산맥인 통합과 합동 측 교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서울강남노회(통합)와 수도노회(합동)의 임원 및 증경노회장, 교단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밝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양 교단의 현황 소개와 함께 칼빈500주년기념대회와 7월10일 장로교의 날 행사에 양 교단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손에 손



을 잡고 상호간에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CTS 기독교 TV와 교계신문 기자들이 참석하여 양 교단의 첫 만남을 취재하였다.

※괄호 앞의 이름은 기도자입니다. (다음 주 계속)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질문하라.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기도 하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전도 하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는가?”

2009 흥해작전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후반기 강사로 서신 이종윤 목사님은 바울 서신의 여왕, 성경의 그랜드 케년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강해로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의 본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하여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흥해작전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행위에 관해 도전을 받았다면, 후반기에는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로 이끌고 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주시는 사랑, 주권적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함이고, 긍휼을 인함이고, 자비로 인함



이다.” 연일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 케리그마는 새벽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며 요동이 없는 깊은 신앙으로 침잠케 한다.

흥해작전은 이미 승리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흥해가 갈라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열린 흥해를 밟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뿐이다.

소돔성에서 의인 열 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앞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아기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군사로 무릎 꿇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기도의 제복들을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이 쏟아지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질문하라.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전도를 하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는가?”

우리가 흥해작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허숙 권사(편집부)

흥해작전

하나의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한대석 성도 (청년2부)



2009 흥해작전은 여느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에 이은 이종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적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2부는 은혜의 시간을 흥해작전에 나오는 몇몇 지체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 2부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자체적으로 몇 가지 캠페인을 하면서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격려 하고 있습니다.



카풀 이벤트로 멀리서 자동차를 몰고 오는 지체들이 빈차로 오지 않고, 오는 길에 있는 지체들을 무조건 깨워 태우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로 오는 길이 더욱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10일 이상 15일, 20일 출석하는 지체들에게 청년 2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주고, 홈페이지에 흥해 출석체크란을 만들어 흥해작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 2부는 교회학교 최다출석인원 목표를 달성하고 은혜로 흥해의 마지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흥해작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흥해작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모하나 차편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함께 흥해

작전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새벽 알람소리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으로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흥해작전! 아직 시작 못하셨거나 중간에 살짝 빠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뵈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

캄보디아 군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현상 목사
(캄보디아 단기선교단 지도)



2009 캄보디아 단기선교가 “캄보디아 군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라는 표어로 8월 3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이재울 선교사님을 도와 캄보디아 내의 4개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단기선교팀은 준비모임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701호에서 갖고 있는데, 이 모임에서는 경건회와 도고기도, 선교지 학습,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현지 언어 학습, 영어와 캄보디아어 찬양, 워십 댄스, 풍선 아트나 페이스 페인팅과 같은 어린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단기선교를 위한 제반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선교는 하인선 장로님을 비롯한 서울교회 의료선교팀의 도움을 받아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등의 의료선교가 3일간 캄보디아 군부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인 캄보디아 단기선교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팀원들은 흥해작전 참석과 말씀읽기에 열심을 내고 있으며,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를 후원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7월 12일, 19일, 26일에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가 8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물품협조를 부탁드립니다(물품협조 및 문의: 권혁우 단기선교팀 단장). 다음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더욱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단 기도제목>

1.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단기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우상의 나라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3. 단기선교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선교의 비전,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4. 단기선교팀원들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단기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5. 의료선교팀에게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환자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게 하소서.
6.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7. 준비하는 선교프로그램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8. 필요한 선교물품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9.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어 캄보디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만민에게 전도 - 농촌전도

작은 사랑의 손길이 농촌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배홍기 집사
(베드로선교회 회장)



베드로선교회, 보뢰전도회가 지난 5월 30일(토) 이미웅, 한방선교팀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위치한 서흥교회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서흥교회는 김광근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사역하시며 가난과 미신, 무속신앙으로 얼룩진 산간벽지를 복음화 하며 인근 부대 군복음화에도 힘쓰고 계시는 곳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군인 한 명당 초코파이 300원, 콜라 200원이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베드로, 보뢰전도회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최전방 3개 부대, 약 130명의 장병들의 머리를 깎아 주었으며 그들이 머리를 깎기 전 기다리는 시간과 머리 깎는 내내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맑고 푸르른 5월의 농촌 마을회관 내에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듯 힘든 농사일로 관절을 앓고 있는 분, 치매, 중풍환자 등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평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에게 한 방의료 진료는 너무나 귀한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스레 침을 머리에

놓고, 약을 조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보뢰 집사님들은 한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외되고 더 이상 갈데없는 분들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아멘하세요~! 머뭇거리다가 이내 아멘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손을 꼬옥잡고 영접기도를 하시는 보뢰 선교회 여집사님들의 얼굴에 전도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서흥교회 목사님은 “저희교회가 이만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님과 또 농촌교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오늘의 농촌은 젊은이와 아이들은 떠나고 나이든

어르신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아직도 이곳에 목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 교회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농촌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1일(주) 칼빈탄생500주년 기념예배 시 성찬식을 집례한다. 22일(월) 칼빈기념심포지움 주제 강연을 한다.

■ 이사 : (11교구) 신정순 권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1187

■ 주간식당봉사 : 모세 선교회(6.21) 이삭 선교회(6.28)

■ 금주의 식사 : 최광성 집사 이정연 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흥해를 가르는 흥해작전 승전을 위하여
3.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우시는 길

